

##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로서 <천군실록>의 의미\*

이채은\*\*

### <차례>

1. 서론
2. <천군실록>의 서사 구성 속 ‘신체화된 마음’의 양상
3. 신체화된 마음 서사로서 <천군실록>의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유치구의 <천군실록>을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로서 읽어보았다. <천군실록>은 인물형상화 차원에서 몸-물질 담화에 기반한 마음의 탄생과 역할을 서술하고 있으며, 공간적 차원에서 안과 밖의 경계를 반영한 마음의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플롯 구성 차원에서 몸 경험의 은유를 통한 마음 변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천군실록>은 심성소설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몸 소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간의 물질적 몸을 그 인물, 공간, 플롯 구성의 토대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구성과 담화적 특징은 동아시아 관점에서 마음(心)개념의 두 가지 차원, 즉 혈액을 온몸에 보내고 기의 흐름을 관장하는 물질적 기관으로서의 마음과 인지적 현상으로서의 마음이라는 두 차원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게 결합된 가운데 가능했던 것이며, 19세기 물질 중심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몸의 물질성에 대한 증대된 관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로서 <천군실록>은 강한 자기지시성과 반성성을 이끌어내는 수용적 효과가 있다. 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심성 수양론에 관한 현실적 이해를 돕는 효과뿐만 아니라 유희적 효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천군

\* 이 논문은 2024년 8월 20일에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제127차 한국고전연구학회 하계 학술대회(기획주제: 물질로서의 인간, 그리고 고전문학)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실록>은 분명 유학의 경전에서 선유들이 이룩한 마음 이해의 이론적 방식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는 서사의 창작자와 향유자로서 유학자들 자신이 물질적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사자적 관찰과 경험의 내용이 함께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성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다. 더욱이 그것이 서사적으로 수용되는 측면에서, 교훈뿐만 아니라 웃음과 재미를 전달하는 복합적인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심성소설, 천군소설, 성리학적 심성론, 체화된 인지, 체화주의, 신체화, 몸의 물질성, 감정의 물질성

## 1. 서론

심성소설(心性小說)이란 ‘성리학의 심성론(心性論)을 우의와 서사라는 문학의 언어로 표현하는’<sup>1)</sup> 작품군으로, 16세기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 장편화되고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고 있다. 동강 김우옹(1540~1603)의 <천군전>, 백호 임제(1549~1587)의 <수성지>, 동명 황중윤(1577~1648)의 <천군기>, 창계 임영(1649~1696)의 <의승기>, 문무자 이옥(1760~1807)의 <남령전>, 혈오재 정기화(1786~1827)의 <천군본기>, 소은 유치구(1793~1854)의 <천군실록>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마음(心)을 의인화한 인물인 ‘천군(天君)’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위험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서사의 배경도 천군의 나라이고, 다루는 주제도 모두 천군(즉 마음)과 관련한 심법(心法)과 수양의 논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천군소설’이라고도 불린다.<sup>2)</sup>

1) 김인경, 「16~17세기 心性敍事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쪽.

그간 심성소설을 이해하는 데에 중심이 되어온 것은 ‘마음(心)’의 개념이었다. 심성소설은 16세기 무렵부터 본격화된 ‘심학(心學) 탐구의 열기에 힘입어 탄생한 것으로, 고도로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심학의 여러 개념과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서사로 표현하여 후학을 교육하는 데에 쓰인 텍스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심성소설들이 심학에서 설명하는 추상적인 ‘심성(心性)’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형이상학적 내용을 구조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sup>3)</sup> 그런 가운데 개별 텍스트들의 해석은 주로 심학의 구체적인 이론이 어떻게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sup>4)</sup> 심성소설들이 공통적으로 심학의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제로 하면서 ‘경(敬)’에 기반한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철학적 깊이를 동반하여 논의되어 왔다.<sup>5)</sup>

이 논문에서는 심성소설의 서사적 의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간 심성소설 연구에서 주목받았던 ‘마음(心, mind)’의 개념이 아닌 ‘몸(形/體, body)<sup>6)</sup>의 개념으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한다. 이는

- 
- 2) 김광순, 『천군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6, 10쪽.
  - 3) 신장필, 「천군류 출현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문학적 지위」,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297쪽.
  - 4) 엄기영, 「천군전, 남명학파의 정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39, 고소설학회, 2015, 45쪽.
  - 5) 김인경(2015), 위의 논문, 4쪽.
  - 6) 심신이원론을 전제로 한 서구철학의 마음과 몸(‘mind’와 ‘body’) 개념을 동아시아 관점에서 심(心)과 신(身)으로 번역할 수는 없다. 신(身)에는 ‘자아’로서의 나 자신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심신이원론의 관점에서 말하는 ‘body’는 오히려 살과 뼈로 이루어진 기관인 ‘형(形)’과 사지를 의미하는 ‘체(體)’의 개념에 더 가까워 보인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심(心)’의 개념 역시 서구철학에서의 도덕적 판단 실천 주체인 ‘이성’과 유사한 지점이 있긴 하나, 동아시아 관점에서 인간 인지과정의 심은 물질적 생명력인 ‘기(氣)’의 개념과 함께 협동하므로 이것 역시 ‘mind’의 개념에 완벽히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이영의, 정우진, 「마음과 정신질환에 대한 동서양의 체화인지적 이해」, 『마음이란 무엇인가』, 박이정, 2024, 104쪽; 김지중, 「동의보감의 양생으로 본 몸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예술치료연구』 11호,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심성소설의 계보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19세기 유치구의 <천군실록>의 구성과 의의를 더 잘 이해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천군실록>에는 마치 의서(醫書)를 방불케 할 정도로 물질적 몸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전경화되어 있다. 본성(性)과 감정(情)을 포괄한 ‘마음의 작용’에 대한 기술이 ‘물질로서의 몸’을 통해 드러나거나 신체적 경험을 동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이 몸에 의존하거나 몸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즉 마음이 신체화(embodied mind)<sup>7)</sup>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신체화한 서사라는 점에서 <천군실록>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서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과 함께 그 수용적 효과와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면서 심성소설을 이해하는 새로운 독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신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은 1970년대 이후 등장한 2세대 인지과학이 제안한 핵심 개념이다. 인지주의(cognitivism)라 불리는 1세대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세계와 분리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간주했지만, 체화주의(embodimentism)라 불리는 2세대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면서 행위로서 구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2세대 인지과학자들은 감정, 판단, 이해, 추론, 상상 등 ‘인지’라고 불리는 마음의 전 작용이 오직 동물로서 자연 세계와 연결된 몸의 신체적 지향성,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면서, 그간 평가절하되어 온 ‘물질적 몸’의 위상을 바로잡으려 애써왔다. 2세대 인지과학을 ‘마음의 과학’이라 부르곤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의 중심에는 우리의 ‘몸’에 관한 재발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2019, 132쪽을 참고함)

7) 신체화(embodiment)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몸체를 통해 알려지거나 드러나는 상황을 가리키며, 한국어로는 체현(체현화), 구현(구현화), 체화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프랜시스코 바렐라 외 지음, 석봉래 역, 『몸의 인지과학(The Embodied Mind)』, 김영사, 2019, 428쪽)

여기서 ‘물질적 몸’이란 권력이나 욕망이 새겨진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동물성이 나타내는 여러 양태로서의 몸에 더 가깝다.<sup>9)</sup> 몸의 물질성은 우리를 때때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거나 수많은 통제불능의 영향에 종속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순수한 이성’이나 ‘초월적 정신’과 엄격히 구분되어 평가절하됐다. 그러나 2세대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오직 그러한 물질인 몸을 통해서만 환경을 지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이 점에서 몸은 우리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물질 덩어리이지만 단순한 물질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격상된다. 이들의 논의에 힘입어 최근에는 데카르트를 대표로 하는 심신이원론의 믿음처럼 인간에게 물질적 몸을 초월한 이성이나 순수한 의지 같은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성과 의지, 인지, 상상력과 같은 ‘마음’의 작용이 우리의 ‘(물질적) 몸’과 급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단단히 연결되어 뒤섞여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체화된 마음 이론은 철학, 미학, 언어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수용되고 있는데, 심성소설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주는 ‘심학’의 의미도 이 관점에서 새롭게 음미되고 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공부의 개념은 ‘몸을 통한 배움’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유학의 심성론과 수양론을 관통하는 ‘체화(體化)’나 ‘체득(體得)’의 개념은 곧 탐구를 통해 배운 지식을 ‘몸’으로 익히는 신체화된 인지 모델이기도 하다.<sup>10)</sup> 실제로 유학자들은 마음으로만 익히는 지식으로서의 앎을 경시했으며, 공부를 몸으로 실천하여 물리적 몸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11)</sup>

8) 이채은, 「판소리 연행의 신체화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4쪽.

9) 테리 이글턴 지음, 전대호 옮김, 『유물론: 니체,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의 신체적 유물론』, 갈마바람, 2018, 8쪽.

10) 유권중, 박길수, 「체화된 인지와 동양철학의 현대화」, 『마음이란 무엇인가』, 박이정, 2024, 117~123쪽.

11) 정우진, 『몸의 연대기: 동아시아 몸의 역사와 철학』, 소나무, 2021, 53쪽.

그렇다면 이러한 심성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심성소설의 서사적 의미 작용 역시 신체화된 마음 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작업 역시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심성소설은 인물·사건·시공간으로 조직된 허구의 사건 연쇄인 플롯을 가진 서사인 만큼, 철학적 의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논변류와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글이다. 그렇기에 비록 그것이 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심성소설 텍스트들은 각각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 심성소설들은 심학의 반영론적 측면에서 주로 해석되어 왔으나, 독자적인 문학 작품으로서 서사의 주된 조직 방식과 그 수용미학적 효과에 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천군실록>의 서사 구성을 ‘인물, 공간, 플롯’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에서 신체화된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분석해 본 후,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로서 작품의 수용적 효과와 의의에 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심성소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천군실록>의 서사 구성 속 ‘신체화된 마음’의 양상

유치구(柳致球, 1793~1854)가 지은 <천군실록>은 심성소설의 역사에서 끝자락에 위치한 작품이다. 유치구는 사상적으로 영남 퇴계학파의 맥을 이은 주리적 심성론을 추구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작가 개인의 사상적 배경에 힘입어 <천군실록>에는 미발(未發)의 상태에서 윤집궐중(允執厥中)하고 계신공구(戒愼恐懼)에 힘쓰라는 보수적 심성 수양론이 반영되어 있으며, ‘정(情)’보다는 ‘성(性)’에 대한 탐구가 심화되어 드러나 있다는 점이 분석된 바 있다.<sup>12)</sup> <천군실록>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상제(上帝)가 어떤 활물(活物)인 심(心)을 하토의 백성을 다룰 천군(天君)으로 임명한다. 천군이 도읍을 ‘격현(隔縣)’에 정하고 궁궐을 경영하여 세웠다.

2. 태초 원년에 천군이 신명사(神明舍)에서 납사어 채청관(採聽官:귀), 감찰관(監察官:눈), 천관수(天關守:입), 현관수(玄關守:코), 인관직(人關職:팔과 손), 지관직(地關職:발과 다리), 인, 의, 예, 지(仁, 義, 禮, 智)를 관리로 임명하고 직책을 나누니 태평성대가 이어진다.

3. 3년이 지나 천군이 영대(靈臺)에 올라 흉해(胸海)를 바라보니 칠정(七情)이라는 일곱 사람이 배를 타고 왕래한다. 칠정이 강궁에 거처하길 원하여 수락한다. 또 3년이 지나 화요(禾杻)공이 천군에게 찾아오니 처소를 허락한다.

4. 또 8~9년이 지나 재위 15년째, 평화가 이어지자 천군이 문치(文治)에 뜻을 둔다. 주인옹이 말리지만 감찰관과 채청관은 천군을 옹호한다. 천군이 이에 고금제가(古今諸家)의 글을 취하니 처음엔 감동하고 중간에는 개연하고 마지막에는 날이 다하도록 탄식하게 된다.

5. 이에 천군은 사방을 여행하여 불평한 기운을 씻으려 하니 신하들이 그를 따른다. 주인옹이 행차를 멈추려 했으나 이미 떠난 뒤였다. 감상에 젖은 천군에게 화요가 다가가 화도(禾刀:利)를 천거하여 객경(客卿)으로 제수한다. 주인옹이 글을 올려 간하였으나 천군이 듣지 않자 황파(黃婆:비장)의 집에 가서 숨어버렸다.

6. 이로부터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여용(女戎:여색)이 색중(色中)에서 일어나고 청주(靑州) 도적 국씨(鞠氏:술) 형제 등 곳곳에서 도적 떼가 일어났다. 성이 헐리고 신하들은 도적에게 항복하고, 정파(情波)가 출렁거려 홍수가 나서 천군은 도읍을 옮기려 한다. 화요와 화도가 도적과 화친하길 권하자 천군이 이를 허락한다.

7. 도읍지를 버리려던 천군에게 주인옹이 단호하게 무력 투쟁할 것을 권한다. 천군은 주인옹에게 서울 근처 기름진 땅을 봉토로 주고 스승으로 삼아 백관이 그 명령을 듣도록 하니 도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해산할 마음을 먹는다.

12) 김수영, 「<천군실록(天君實錄)>의 서사 특성과 사상적 지향」,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242쪽.

8. 두어 달 뒤 주인옹은 목궁에 있는 지(志)를 대원수로 임명해 도적의 족류를 없애자고 하였고, 천군은 지수(志帥)에게 네 개의 깃대를 주며 격려한다. 지수는 인(仁)이 준 부채, 예(禮)가 준 방패, 의(義)가 준 칼, 지(智)가 준 거울을 들고 출정한다.

9. 지수는 파죽지세로 선관(善關), 몽관(夢關), 인귀관(人鬼關)에서 이긴 뒤 성의관(誠意關)에서 군대를 멈추고 적에게 격문을 보낸다. 여옹은 달아나다 잡혀 죽고 국순 형제는 숨어버리고 나라가 평정을 되찾는다.

10. 천군이 크게 기뻐하며 성의관을 증축한다. 이에 관 안은 성현의 지역과 같고 관 밖은 소인의 참호가 된 것과 같아져서, 관문을 옥으로 만든 자물쇠로 잠가 버렸다.

11. 천군이 주인옹은 옛 벼슬 그대로 정승으로 백관을 거느리게 하고 지수는 성의백(誠意伯)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천군이 높이 군림하니 천하가 태평해진다. 천군은 보문각의 네 신하에게 정사의 시말(始末)을 서술하라 명한다.<sup>13)</sup>

### 1) 몸-물질 담화에 기반한 마음의 탄생과 역할 서술

<천군실록>에 나타난 신체화된 마음의 양상을 인물형상화의 측면에서 찾아본다면, ‘마음(心)’의 의인화된 주인공 천군(天君)의 형상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천군은 “마음(心)은 한가운데 텅 빈 곳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다스리므로 천군이라고 한다.”<sup>14)</sup>라는 『순자』의 구절에 따라 만들어진 인물로, 비가시적인 마음을 눈에 보이는 물질인 인간으로 형상화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마음이 신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천군의 원관념이 되는 ‘마음(心)’에는 본디 물질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의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 첫 번째로 여기에는 ‘기관으로서의 심’, 즉 심장(心臟)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동아시아에서 심장은 서양

13) <천군실록>의 원문과 해석은 김광순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72~165쪽을 참고하였다. 지면 관계상 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이 책의 쪽수만을 밝혀놓으며 필요한 곳에는 인용자가 밑줄을 그어 강조표시하였다.

14) 『荀子』, 「天論」,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



의학적 관점의 물리적 기관이라기보다는 혈기의 순환과 함께 심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적 기관’이다. 예를 들어 맹자는 심장을 사유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면서 도덕적 성향은 심장에 속하고 욕구라고 불리는 성향은 감각 기관에 속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의 심’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 이는 희로애락의 감정과 사려·판단·계산·속고와 같은 인지 현상을 말한다. 인지 현상으로서의 심은 신체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정보를 취합, 판단,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서양철학적 관점에서 이성에 대응한다.<sup>15)</sup> 이처럼 천군의 원관념인 마음(心)은 그 자체가 ‘마음과 몸(mind and body)’에 동시에 속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천군실록>에서 천군을 설명하는 담화에는 이렇게 물질이면서 동시에 정신인, ‘신체화된 마음’의 개념이 잘 드러난다. 천군은 태초에는 ‘활물(活物)’, 즉 ‘살아있는 물질’로 일컬어지는 존재였지만 ‘상제(上帝)’<sup>16)</sup>에 의해 천군으로 봉해져 인세에 내려온다. 작품 초반에 보문각 신하들이 상제에게 하토(下土)의 인민(人民)을 다스릴 임금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때, 이들은 “어찌 천군이 토지 없이도 높고 백성 없이도 귀하여 천지와 더불어 오래 가고 일월과 더불어 항상 있는 것과 같겠습니까?”하고 아뢴다. 이 말은 천군 즉 인간의 마음이란 몸(토지와 백성), 우주와 환경(천지와 일월)과 모두 연결되어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며 응당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에 상제는 “유행(流行)하여 막힘이 없고, 응용(應用)하는 데에도 궁(窮)하지 않아서 삼재(三才)를 갖추어 경륜(經綸)하고 기획하는 공이 있으며, 이의(二義)에 짝하여 중화(中和)와 위육(位育)의 묘한 이치를 이루고, 내놓으면 육합(六合) 가운데에 가득하고 물러가면 지극히 뻑뻑한 자리에 간직되어, 크기를 말하면 천하에 능히 실을 데가 없고 작기를 말한다면 천하

15) 동아시아의 마음(心) 개념에 관한 설명은 정우진(2021), 앞의 책, 43~50쪽을 참고함.

16) 상제는 우주의 지극한 원리인 ‘태극(太極)’을 의인화한 것이다. (김수영(2019), 앞의 글, 208쪽.)

에서 능히 깨뜨릴 수 없”는 한 활물을 천군으로 봉해 내려보낸다.

“내가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 형체에 따라 두루 갖추게 하였으며, 홀로 인간만을 가장 완전하고 후하게 하였으니, 근골과 비육은 땅에서 얻고, 정혈과 진액은 물에서 얻었으며, 호흡과 체온은 불에서 얻고, 영명하고 활동하는 것은 바람에서 얻어 (...) 그 형을 타고남에 있어 다른 물체와 다른 것이다. (...) 이러한 형체(形體)와 성(性)을 실어준 까닭에 곡미를 낳아 이를 먹게 하고, 뽕나무와 삼을 생산하여 이를 입게 하였으며, 고기와 소금을 바다에 간직하여 반찬에 쓰게 하고, 재목을 산에 간직하여 집을 짓는데 쓰이게 하였다. 또한 오십이 된 사람은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은 까닭에 누에실과 가벼운 옷 등을 생기게 하고, 칠십이 된 사람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은 까닭에 닭과 돼지와 개와 산돼지와 같은 가축을 생기게 하였다. (...) 그대 천군은 이를 생각할지라. (...) 천하에 고향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자에게 제자리를 잃도록 하지 말며, 모든 동물과 초목군생, 혹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다 식량을 얻도록 하면, 곧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 먹고 사는 백성과 모든 혈기를 가진 것들이 누군들 높이고 친하려 하지 않으랴”(76~78쪽)

상제는 인간이 형체와 성을 함께 가진 완전하고 후한 존재이지만 물질적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취약한 존재이며, 이에 천군(마음)을 내려보내 인간을 돌보겠다고 밝힌다.<sup>17)</sup> 그런데 인간에게 천군(마음)이 필요한 이유를 비유적으로 서술한 위 인용문은 인간의 몸을 이루는 뼈와 살, 피와 진액, 호흡과 체온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자질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17) 이처럼 인간의 마음(천군)의 기능과 필요성을 몸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대목은 초기 심성소설 작품에서는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우옹의 <천군전>(1566)에서 천군은 하늘의 황제인 건원제(乾元帝)의 맏아들이었다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인세에 내려오는 인물인데, 본래 이름은 이치(理)이며 단순히 하토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군주로 임명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서술된다. 임제의 <수성지>(1578년 작 추정)의 경우에는 천군이 초월자의 명을 받아 하토에 봉해지는 과정 자체가 장면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연유로 인세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있어서 주목된다. 여기서 인간은 그러한 물질적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의식 주를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만 하며, 심지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를 낱말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물질적 몸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우주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이 물질적 몸과 뗄 수 없다는 인식이 상당히 구체화된 서술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의 의인화인 천군을 형상화하는 데에 있어서 <천군실록>은 ‘몸-물질’에 기반한 서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천군이 이에 명을 받고 내려와 혼돈한 근원에 돌아와서 내의 구역을 두루 보니,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모양을 본뜬 것이요, 발이 모난 것은 땅의 모양을 본뜬 것이며, 사체는 곧 사시의 모양을 본뜬 것이요, 오장은 곧 오행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 육기를 본받아 육부가 있고, 구해를 본받아 구구가 있으며, 하늘에는 십이지가 있고 땅에는 십이위가 있는 까닭에 사람에게는 큰 마디가 십이개가 있고 (...) 합해서 말하면 곧 천지(天地)의 태(泰)라. 이에 지형을 따라서 산천에 자리잡으니, 곤륜의 뒤는 옥침관(玉枕關: 뒤통수), 녹로관(轆轤關: 목구멍), 미려관(尾閭關: 엉덩이)에 이르고, 곤륜의 앞은 오악(五岳: 이목구비)으로 벌여 있으며, 좌우로는 견용산(肩聳山: 어깨), 곡주산(曲肘山: 팔꿈치), 쌍부산(雙跗山: 발뒤꿈치)에 이르고, 간액(肝液)을 인도하여 동으로부터 은혜에 흘러들어 눈물이 되게 하고, 신액(腎液)을 인도하여 북으로부터 흑감에 흘러들어 타액(唾液)이 되게 하고, 비액(脾液)을 인도하여 중앙으로부터 화지를 통하여 연액(涎液)이 되게 하고, 심액(心液)을 인도하여 남으로부터 밖으로 발하여 땀이 되게 하였다. 오액(五液)을 인도하여 백체(百體)가 제자리에 안정되었다.”(78~79쪽)

위의 인용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이 자신이 다스릴 나라를 살펴보는 장면으로 천군의 시선에서 인간 몸의 외양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머리와 손발, 오장육부의 연원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

의 형상은 산과 강에 빗대어 하나하나 묘사하여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백체(百體)를 ‘제자리에 안정’시키는 것이 천군의 역할이라는 말은 곧 마음이 신체와 연결되어 신체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천군이 인세에 자리잡은 뒤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일은, 귀, 눈, 입, 코, 팔과 손, 발과 다리와 같은 신체 부분들을 신하로 임명하는 일이다. 유가적 심성 수양론에 기반한 심성소설들은 공통적인 서사 전개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sup>18)</sup> 이 장면은 인간의 도덕성과 같은 정신적인 차원에 앞서 신체에 먼저 주목하고 있는 장면으로서 다소 이질적인 지점이다. 초기 심성소설 작품인 <천군전>에서 천군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 가장 먼저 ‘경(敬)’을 총재로 임명하는 일을 한다는 것과는 대조된다.

“채청관(採聽官: 귀)야!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들음에 있어 개미의 움직임 같이 작은 소리를 소 싸움하듯 큰 소리로 듣는 것이 반드시 총명하다 할 수 없고, 우레 소리같이 큰 소리를 모기 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듣는다고 반드시 귀머거리라 할 수도 없는 것이라.”

“감찰관(監察官: 눈)야! 너는 나의 보는 것을 대신하라. 추호의 끝과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도 능히 스스로의 속눈썹을 보지 못하며, 천군의 무게를 드는 자도 능히 자기 몸을 스스로 들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찌 된 까닭일까? 남을 보는 데는 밝되 자기를 보는 데는 어두운 것이라.”(82~83쪽)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천군이 몸의 각 부분을 관리를 임명할 때에는

18) 많은 심성소설 작품들은 경(敬)이나 의(義)와 같은 도덕성을 의인화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가장 초반의 작품인 김우옹의 <천군전>에서 드러나는 플롯(천군이 주재하는 국가의 성립과정-간신형 인물과 역적의 발호로 인한 혼란-총재 경(敬)이 중심이 되어 천군을 복귀시킴)의 정형적 구도가 천편일률로 드러난다고도 여겨진다. <천군실록> 역시 발문에서 <천군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신상필, 『천군류 출현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문학적 지위』,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301쪽; 강혜진, 『콘텐츠 기반 고소설 연구 시론-천군소설과 웹툰 <가담항설>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5, 우리어문학회, 2013, 258쪽)

신체의 기능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감각의 상대성이 자세하게 설명된다. 귀는 작은 소리를 때때로 크게 듣기도 하고, 눈은 남을 보는 것은 밝지만 자기를 보는 것에는 어두울 수 있다.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코는 숨을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냄새를 맡는 일을 하기도 한다. 손과 팔, 발과 다리는 자유로운 운동성을 가지지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제될 필요도 있다. 이에 천군은 이들에게 자신의 명에 따를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천군의 활동은 심(心)이 몸 물질의 일부이자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 이중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귀 눈 코 입 몸은 각각 접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에게 각각의 능력을 줄 수는 없다. 이것을 일러서 천관 즉 하늘이 정해 준 관리라고 한다. 심(心)은 가운데 텅 빈 곳에 거처하면서 오관을 다스린다. 이것을 일러 천군이 라고 한다.”<sup>19)</sup>

“귀와 눈의 감각은 사려하지 않으므로 외물에 가린다. 사물과 사물이 만나면 서로를 끌어당길 뿐이다. 그러나 심(心)이라는 기관은 사려한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그 큰 것에 먼저 서면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한다. 이것이 대인일 뿐이다.”<sup>20)</sup>

위의 『순자』와 『맹자』에서도 언급하는 심(心) 역시 물질과 정신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대체(大體)로서의 심장은 소체(小體)인 감각과 연결되어 그것을 ‘사려함’이라는 기능으로 제어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물질적 몸의 활동과 감각이 우리의 존재를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올바른 몸의 기능과 활동을 위해 마음(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19) 『荀子』, 「天論」: 耳目口鼻形, 能各有接而不相能也, 夫是之謂天官,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

20) 『孟子』, 「告子上」: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弗能?也. 此爲大人而已矣.

다. 실제로 채청관(귀)과 감찰관(눈)은 이후에 서사가 진행되면서 잘 꾸민 글에 마음(천군)이 미혹되는 것을 부추기기도 하고, 화요(私), 화도(利)의 간사한 말에 앞장서서 미혹되기도 한다.

신체의 각 부분을 신하로 임명하는 것이 끝나면 그다음에야 비로소 천군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이자 ‘도심(道心)’인 ‘성(性)’의 의인화인 ‘주인용’을 호명하고, 그에게서 인·의·예·지를 추천받아 관직을 제수한다. 이때 천군(心)과 주인용(性)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술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물질세계를 살아가면서 몸으로 경험한 여러 활동들을 나열한 체험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구성된다.

㉠ “내가 경을 보기를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등불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처럼, 농부에게 밭이 있는 것처럼, 장사꾼에게 재물이 있는 것처럼 여길 것이니,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떨어지고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꺼지고 고기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고 농부는 밭이 없으면 굶주리고 장사꾼은 재물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필연한 이치라.”(89~89쪽)

이처럼 <천군실록>에서 천군(마음)이라는 인물의 탄생과 역할과 기능, 천군과 다른 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관념적인 서술보다는 우리의 실제 ‘몸’을 포함한 물질세계를 활용한 구체적인 경험적 서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 동물’로서 물질적 몸을 동반하여 물질세계의 우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전제한 것으로, 물질과 비물질적 차원에 동시에 관계된 마음(心) 개념의 의인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안과 밖의 경계를 반영한 마음의 공간 구조 설정

다음으로 <천군실록>에서는 마음(천군)이 거처하는 공간을 형상화하는 방식 역시 신체화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인지와 정신을 총괄하는 정수

(精髓)가 마땅히 ‘몸 속’에, 특히 흉부에 위치한 ‘심장’이라는 기관 안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상제가 천군을 내려보낸 지역의 이름은 ‘방촌(方寸)<sup>21)</sup>’이다. 천군은 도읍을 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곤륜(머리)에 가 봤으나 사방을 총괄할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격현으로 도읍을 정한다. 천군이 스스로 자신의 도읍지로 선택한 격현은 ‘붉은 색의 땅’이며 ‘적실(赤實, 즉 심실)’을 포함하고 있고, 방위상 남쪽이며 오행 중 ‘화(火)’로 상징되기에 기관으로서의 ‘심장’에 관한 서술과 같다.

“곤륜(崑崙: 머리꼭대기) 밑에 구궁(九宮)이 있고 오악(五岳: 얼굴) 안에 조그마한 집이 있으나 상류(上流)에 있어서 몸의 모습이 높은 데 치우쳐 모두 사방을 총괄할 자리가 아니다. (...) 태화(太華) 남쪽 신주(神州)의 곁에 한 천부(天府)가 있으니, 이르기를 격현이라 한다. 모든 관문이 그 뒤를 둘러싸고 흉해(胸海)가 그 앞에 둘러 있고 (...) 그 흙은 적색(赤色)이고 그 발은 단색(丹色)이고 그 자리는 양(陽)을 향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만세불발의 터전이라.”(80쪽)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처소가 오늘날의 인식처럼 머리(뇌)가 아니라 흉부에 있다는 인식은 ‘심장’을 몸의 중심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신체관에 바탕한다. 기원전 3세기 이전의 동아시아의 몸에는 뇌가 없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뇌와 사유를 연결하거나 뇌를 중시하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사정은 한의학의 성립 이후에도 비슷하게 이어진다. 뇌는 계산과 같은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액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생명 물질에 불과했다.<sup>22)</sup>

21) 방촌은 ‘한 치 사방의 넓이’를 뜻하는데 심장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듯 한 치 사방의 넓이인 심장에 깃들어 있다는 뜻으로 ‘마음’을 달리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22) 정우진(2021), 앞의 책, 89쪽. 『황제내경』에서도 “뇌는 수(水)의 해(海)다.”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뇌는 진액의 원천으로 여겨졌을 뿐 한 번도 심리적

그런데 심장을 몸의 중심으로 보는 생각은 단순히 그것이 몸의 공간상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혈맥’을 주관한다는 인식과도 관련이 된다.<sup>23)</sup> 『황제내경』 뿐만 아니라 『회남자』에서도 “심장은 오장의 주인이다. 사지를 제어하고 혈기가 흐르게 만든다. 심장은 시비의 경계를 달리고 온갖 일을 결정한다.”<sup>24)</sup>라고 언급되어 있다.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혈액은 생리적 건강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서였기에 수행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혈액은 수행의 정도를 알려주는 징표였다. 예를 들어, ‘효(孝)’의 실천은 단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드리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알맞은 ‘낮빛’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또한 혈액순환을 하는 심장의 기능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흔히 마음이 ‘물’로 은유된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올바른 마음은 잔잔하고 맑고 막힘없이 흐르는 물이며, 그렇지 않은 상태는 오염된 물이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천군이 물(혈맥)을 주관한다는 표현은 <천군실록>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㊸ “청랭궁(淸冷宮)의 곁에 자극궁(紫極宮)이 있고 또 육부(六府)를 차렸으니, 첫째는 청정부(淸淨府:슬개)라 이르고 둘째는 수곡부(水穀府:위장)라 이르고, 셋째는 수성부(受盛府:비장)라 이르고 넷째는 전도부(傳道府:창자)라

현상과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3) 정우진(2021), 같은 책, 142~153쪽.

24) 『淮南子』, 「原道訓」, “夫心自五臟之主也 所以制使四支 流行血氣 馳騁于是非之境 而出入于百事之門戶者也.”

25) <천군실록>에서 태평성대의 시절은 ‘방당(方塘)의 물은 고요하고 옥연(玉淵)의 물결은 잔잔’해지거나 ‘정기(情氣)의 물결이 움직임이 맑아 찌꺼기가 없’고 ‘황허수가 맑은’ 상태로 표현된다. 반면, 혼란의 시절은 ‘광천(狂泉)의 물을 열어 놓아 방당의 위에 대고 음천(淫泉)의 물을 떼어서 옥연 속으로 들여보내니, 이로 말미암아 정파(情波)가 불어 넘치고 옥심의 물결이 출렁거려 (…)’ 홍수가 난 상황, ‘문체가 있는 단청과 도의로써 새기고 꾸민 것들이 황토물의 혼탁한 속에 다 썩은 상황으로 은유된다.



이르고 다섯째는 진액부(津液府:방광)라 이르고, 여섯째는 고부(孤府:삼초)이라 일렀다. 그 대를 일컫기를 영대(靈臺)라고 하고, 물을 신수(神水)라 이르고 못을 옥연(玉淵)이라 이르고 연당을 방당(方塘)이라 이르고, 그 방을 적실(赤實:심실)이라 일렀으며,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고 색은 붉은 것을 숭상하고 수는 칠(七)로서 기(紀)를 삼았다.”<sup>26)</sup>(81쪽)

천군은 격현에 궁(宮)을 세워 춘관(春官) 인(仁)과 하관(夏官) 의(儀), 추관(秋官) 예(禮)와 동관(冬官) 지(智)를 살게 하고, 또한 육부(六府)를 차린다. 이때 육부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배 속의 여섯 가지 기관에 해당하는데, 심장(즉 기관으로서의 심)이 오장육부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천군은 주로 ‘영대(靈臺)’에 머무르며 정사를 ‘내려다본다.’ 천군이 영대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조감적 시선은 마음(心)이 육부를 포함한 신체 곳곳보다 더 중요하며 더 우위에 있다는 감각을 전달한다.

천군이 거처하는 공간의 지리적 위치와 형태에 관한 서술은 ‘마음’과 ‘마음 아닌 것’ 사이 경계를 나누거나 높낮이 차이를 형상화하여 위계를 드러내고 있다. 천군의 처소로 언급되는 신명사(神明舍)<sup>27)</sup>는 말 그대로 ‘신명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천군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진다. 집에 관한 보편적인 우리의 몸적 경험은 고된 일정을 마친 후 귀환할 수 있는 곳,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안전함을 보장하는 장소에 대한 경험이다. 이 경험은 집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중심으로 벽 ‘외부’의 ‘주변’이

26) 『한국고전문학전집』 81쪽의 주해에서는 ‘청정부’가 도교의 ‘청정무위’에서 나온 말이라 했으며, ‘진액부’를 침샘, ‘고부’를 목구멍의 비유라고 밝혔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의 용어로 청정부는 쓸개, 진액부는 방광, 고부는 삼초(수액 대사를 담당하는 기능 복합체)를 뜻한다.(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정담, 2010.) “담은 청정한 쓸개즙을 담고 있는 창고다. 위는 오곡을 채우고 있는 창고다. 방광은 진액이 들어 있는 창고다. 삼초는 속에 있는 도량과 같은 창고다. 대장은 전달해주는 창고다. 소장은 받아서 채우는 창고다.” (정우진(2021), 위의 책, 131쪽.)

27) 『荀子』, 「解蔽」 “心子, 形之君也, 而神明之君也.”

분리되는 감각과 결부되어 경계의 안쪽은 안전하고 중심적이며 바깥쪽은 불안전하고 주변적이라는 느낌을 동반한다.

<천군실록>의 서사 공간들도 천군이 머무는 ‘중심 공간’과 ‘주변 공간’으로 반복해서 경계지어진다. 격현은 ‘모든 관문이 뒤를 둘러싸고 흥해가 그 앞을 둘러있는’ 고립된 지역이다. 흥해라는 넓은 바다는 신명사, 영대, 궁궐이라는 건축물을 크게 둘러싼 또 다른 경계선이다. 이후 서사의 진행에서 마음 나라의 평화를 깨는 인물들인 칠정(七情)과 화요(禾夭), 화도(禾刀)는 모두 이 흥해의 ‘바깥에서’ 배를 타고 왕래하는 자, 즉 경계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설정 역시 칠정, 화요, 화도라는 인물이 불안전하고 위험한 ‘침입자’임을 은유한다. 그러면 침입자에 맞서 마음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서사 공간의 구조는 이후에 마음의 위기 상황에 관한 플롯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 3) 몸 경험의 은유를 통한 마음 변화의 플롯 구성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상화된 인물들이 서사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연결되는 논리, 즉 플롯의 조직 측면에서도 마음을 신체화하여 이해하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심성소설의 플롯은 중심인물인 천군에게 벌어지는 일, 즉 마음의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여러 사건들로 연결한 것이며 이는 <천군실록>도 예외가 아니다. 마음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은 나뭇의 논리로 연결되면서 처음-중간-끝으로 자연스럽게 조직되는 선들을 만들어내며, 작품의 주제적 의미는 이러한 선이 연결되는 논리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특히 성리학적 복초론(復初論)에서는 인간의 성정수양이 ‘원형-타락-회복’의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보는데<sup>28)</sup>, <천군실록>에서는 이에 따라 마음에

28)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3, 한국한문학연구회, 1990.

위기가 닦혔다가 회복하게 되는 과정이 「전쟁에서의 승리」, 「여행에서의 귀환」이라는 두 가지 경험적 은유로 연결되고 있다. 전쟁과 여행은 그 자체로 마음과는 관계없지만, 인간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보편적인 경험들이다. 이러한 은유는 추상적인 마음의 상태 변화를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이해하는 한 방식을 보여준다.

마음에 닦친 위기와 그 해소의 과정을 그리는 첫 번째 은유는 「전쟁에서의 승리」이다. 이 은유는 특히 마음에 침입한 외부의 적을 처단하여 원래의 상태를 되찾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천군실록>의 인물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적 관계가 아닌 모두 (임금과 신하라는) 엄격한 공적 관계로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도 궁궐, 성곽 등 사회적으로 경계 지어진 구조 속에서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과 공간 요소로 구성되는 서사 세계의 위기는 공적차원에서 인물들의 위계에 문제가 생겨, 임금이 명하고 신하가 그에 따르는 질서가 어그러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드러난다.

천군이 다스리는 나라의 위기는 ‘바깥’과 ‘주변부’에서 ‘침입’해 온 인물들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칠정(七情)<sup>29)</sup>, 화요(禾夭)<sup>30)</sup>, 화도(禾刀)<sup>31)</sup>가 천

29) 천군이 영대(靈臺)에 올라서 흉해(胸海) 위를 바라봄에 일곱 사람이 있어 각각 한 척씩 빠른 배를 타고 물결을 따라 왕래하는지라. (...)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인 옹이 대답하기를, “칠정(七情)입니다.” (...) 천군이 이르기를, “공들은 다 어디에 있었는가? 어찌 서로 만나기가 이렇게 늦었는가?” 대답해 말하기를, “신 등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 하풍(下風)에 머리 감고 맑은 덕화(德化)에 먹감은 것이 죽히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임금의 명령하에 강궁(絳宮) 곁의 한쪽 터전을 빌어 여기에 거처하기를 원하옵니다.”(91쪽)

30) 또 3년이 되었는데 형체와 기질 중에 화요공(禾夭公)이란 자가 있어 문 앞에 와서 고하기를, “듣건대 천군께서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덕과 도량이 있다고 하니 조그마한 터를 얻어 백성이 되고자 하나이다.” 천군이 이에 처소를 주니, 그 무리 의(意)와 필(必)과 고(固)와 아(我) 등과 더불어 서로서로 원호(援護)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근거하였다.(92~93쪽)

31) “화요란 자가 뛰어나와 아뢰기를, (...) “신의 손님에 화도(禾刀)란 자가 있으니, 칠정

군의 허락을 받아 도읍 안에 터전을 잡고 거하기 시작하는데 천군이 문치(文治)에 뜻을 두어 방심한 사이에 나라를 흔든다. 화요나 화도는 심장이 아니라 ‘허파나 장부 속에 붙어서’ 선한 마음을 막아 버리고 물욕의 누(累)에만 끌리도록 하고, 이목구비·손발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천군의 명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르게끔 만든다.

다른 인물들의 우위에서 군림하여야 할 천군이 오히려 이들(침입자)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면서 인물관계의 위계가 어그러지자, 도읍지 외부 곳곳에서 도적들이 난을 일으키게 된다. 먼저 여용(女戎)이 일어났고, 성완(聲玩), 보완(寶玩), 복완(服玩), 기완(器玩), 금완(禽玩)이라는 다섯 도적 떼가 일어났으며, 마지막으로 청주(淸州) 도적 국씨(麴氏) 형제도 기세를 떨치게 되었다. 여용은 여색(女色)을 탐하는 마음이며, 다섯 도적 떼는 각각 아름다운 소리, 보물, 좋은 의복, 기물, 사냥을 탐하는 마음의 의인화이다.<sup>32)</sup> 이들은 모두 ‘외물’에 대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방탕해지

의 애(愛)와 더불어 땀땀한 벼으로 맺으려 하였으나 추관(秋官)의 의(義)에게 거슬러서 감히 령(命)을 내지 못하였는데, (...) 공봉하는 직무를 맡기신다면 주군을 즐겁도록 하려는 생각이 이르지 않을 바가 없어서 (...) 의복의 화려함과 이부자리의 아름다움을 몸에 맞도록 부를 것입니다.” 천군이 “너의 말이 나의 뜻을 조금 더 너그럽게 하도다.”라고 하고 화도를 불러 객경(客卿)으로 제수했다.(109~110쪽)

특히 전대 천군서사에서는 등장한 적 없는 인물인 화요는 사사로움(私)의 의인화이다. 『논어(論語)』 「이인(里仁)」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라고 나와 있는 구절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인물형이다.

32) 도적들로 인해 빚어진 마음의 위기를 표현하는 서술 방식도, 몸의 물질성과 물질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진하게 담겨져 있다. 아래에 몇몇 사례를 인용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3장에서 진행해 본다.

\* 여용에 관한 묘사: “봄날처럼 밝은 안색과 옥(玉)같은 용모에 분이나 붉은 화장을 바르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이고 가느다란 허리와 연약한 몸뚱이는 붉고 푸른 옷이 아니라도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물며 다시 자주색 비단 같은 연지와 푸른 옥으로 꾸민 머리 치장을 가지고 그 얼굴 꾸미기를 야단스럽게 하고”

\* 다섯 도적 중 ‘복완’에 관한 묘사: “그 복완(服玩)으로서는 도포와 치마에 향기를 띠되, 난초가 아니라면 사향ियो 대자리와 초석에 비단을 꾸민 것이 민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축의 것으로서, 옷을 입으면 젖지도 타지도 않으니 원교산에서 나온 실로

고 욕심이 일어나게 된 위기 상황을 은유한다. 도적떼들은 ‘성을 헐어 헤치고 관문의 방비를 끊음’으로써 마음의 안과 밖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온 나라가 황폐화되자 화요와 화도는 천군에게 다가가 ‘상하를 서로 잊어버리고 편안함을 얻자’라고 제안하기까지 한다.<sup>33)</sup> 군신의 위계관계와 성곽 안팎의 경계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㉞ 여용과 사신을 통하여 무기로써 겨루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이에 (...) 노닐고 잔치하는 속에 함정을 만들어 빠지게 하고 말하고 웃는 속에서도 창을 던져 찢러대며 (...) 욕심 호랑이, 탐심 이리, 독한 뱀, 조금한 원숭이, 노둔한 코끼리, 분을 낸 코뿔소 무리들을 몰아서 군사의 세력을 돕게 하여 추파(秋波)를 보낸 위에 열병(列兵)하고, 덕문(德門)의 곁에서 무기로써 시위하고 화지(華池)의 곁에서 형체를 드러내고, 옥로(玉廬)의 밑에서 기병(奇兵)을 베풀어서 (...) 쥐도독이나 개도독들이 때를 타고 일어나서 성들을 헐어 헤치고 관문의 방비를 끊어버려서(124쪽)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력을 동반한 단호한 진압이다. 주인공은 천군을 찾아가 ‘도적의 무리를 멸하고 소굴을 뒤엎어 버려서’ ‘요망한 분위기를 소제하여 내외를 숙청’하여야 한다고 간언한다. 그는 ‘우리의 도를 닦아서 방패로 하고, 우리의 덕을 밝혀서 갑옷과 투구로 하고, 우리의 예를 세워서 성곽으로 하고, 우리의 의를 행하여 이로써 관방으로’ 삼으면

된 것인가?”

\* 국씨 형제에 관한 묘사: “또 청주 도적 국씨 형제가 있으니(...)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하며 각각 한결같은 물건을 잡고서 얻어졌다가 자빠졌다가 하여 그곳으로 돌아가 붙어서 방릉의 오얏과 동릉의 참외와 형양의 봉란과 용주와 영남의 성각과 경장을 다 대바구니에 채우게 되고 (...) 육지와 바다의 물건을 전부 어울려 도마위에 올려 기름이 푸른 가마솥에서 우는 듯하니 보는 자는 손가락을 적시고 싶어지고 옥으로 만든 단지에서 서로 출렁거리니 듣기만 해도 턱이 움직이려 하도다.”

33) “힘을 헤아려서 처신하고 몸을 굽혀서 항복하여 더불어 화친하면 곧 우리가 주(主)가 되겠습니까? 저편에서 주가 되겠습니까? 혹은 저편에서 객이 되겠습니까?”(127쪽)

곧 나라안팎이 평정될 수 있을 것이라 건의한다.

이에 천군은 깨닫는 바가 있어, 목궁에 사는 지(志)를 대원수로 임명하여 성 밖의 도적을 토벌하도록 명한다. 네 개의 깃대를 하사받은 지수(志帥)는 인의예지로부터 덕을 퍼는 부채, 사사로움을 막는 방패, 이매를 베는 칼, 관에 비치는 거울을 얻어 출정한다. 그는 “덕을 일컫는 기마를 타고 공경한 덕으로 된 수레를 몰아서 기줄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적과 서로 마주침에 한번 싸워 선관에서 이기고, 두 번 싸워 몽관에서 이기고, 세 번 싸워 인귀관에서 이겼는데, 호령이 밝고 엄숙하며 부대와 진이 엄하고 정연해서 의연히 범할 수 없는 기색을 가져, 드디어 성의관의 머리에서 군대를 멈추고 격문을 보내어”(147쪽) 도적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된다. 이로써 간사한 무리가 평정되고 요사한 분위기가 활짝 트여, 건곤이 두 번째로 만들어지고 일월이 거듭 밝아지게 된다.

이처럼 마음의 밖에서 안으로 침범해 온 도적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외부 사물에 감응된 탐욕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마음을 다시 굳건한 상태로 회복하는 마음의 수양 과정을 은유한다. 전쟁이 끝난 후 천군은 지수에게 명하여 공사(公私)를 판단하고 이욕(利慾)을 끊는 관문인 성의관(誠意關)을 증축하여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성곽을 쌓아 올려 버린다. 이에 ‘관 밖은 소인의 참호가 되고 관 안은 성현의 지역이 되어’, 안과 밖의 경계가 더욱 엄격해지게 되었으며 아예 ‘옥으로 만든 자물쇠’로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게끔 단단히 잠가 버리게 되었다. 이후 천군이 황극전에서 태평연을 베풀니 더 이상 감히 ‘서차(序次)’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마음에 닥친 위기와 그 해소의 과정은 「여행에서의 귀환」으로도 은유되는데, 이는 천군이 ‘중심, 안쪽’의 안전한 공간에서 벗어나 ‘바깥, 주변’을 배회하면서 마음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고, 다시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을 때 위기가 해소된다는 플롯을 구성한다. 이 은유는 특

히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방심과 극기(克己)를 통한 수양을 표현한다. 천군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공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곧 주인 없는 집에 ‘침략’하는 적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앞선 전쟁의 은유와도 연결된다.

즉위 초반에 태평성대가 이어지자 천군은 문치(文治)에 뜻을 두게 되어 세속 선비의 걸만 꾸민 글을 보고 나서 ‘처음엔 감동되었다가 중간에 가서는 개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읊 읊히 즐겁지 아니하여’ 심사가 울울해지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여섯 구멍이 피로하여 어지러워지고, 사체가 게을러지고 근심스러워져서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다하도록 탄식하’(100쪽)다가 불평한 기분을 풀고자 여행을 떠난다. 이때 그는 채청관(귀)와 감찰관(눈), 칠정을 좌우에 세우고 손발을 참승(驂乘)으로 삼아 떠난다.

바깥으로 나간 천군은 온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천만고의 인물, 십구대의 흥망, 한 사람의 삶과 한 나라의 역사’를 두루 살피면서 간혹 기쁘고 즐겁고, 슬퍼하고, 쾌락에서 춤추고 뛰어오르고, 팔을 걷어 올려 분노하기도 한다. 감정이 격해진 천군이 여행 중에 기운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점점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이 밝지 못하게 되고, 눈이 색에 흘려서 보는 것이 밝지 못하고, 입과 코의 욕망에 움직여 냄새와 맛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아래 인용문에서처럼 감정이 널뛰고 평정심을 잃은 마음의 상태는 위와 같이 천군이 급히 움직이고 위험하게 이동하는 활동으로 은유된다.

의마(意馬)를 타고 소요하고, 정거(情車)를 몰고서 너풀거리며, 절협한 지역으로 달리되 평탄하다고 보며, 지극히 위태로운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편안하다고 가리키는 (...) 다 험어진 배에 앉아서 놀란 파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돛대를 놓고 닻줄도 잃어버렸으면서도 중류에서 자득하는 것과 같았다.(117쪽)

말이 고삐를 벗은 것과 같고, 수레에 바퀴가 빠진 것과 같아서 정신이 흩어지고 내달리어 나날이 틀에 끼어지고 다달이 없어지고 하여 (...) 천군이 능히 그 수족을 쓸 수 없어서 (126쪽)

(천군이) 잠깐 사이에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가기를 시도때도 없이 하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연나라로 달리고 월나라로 달아나 떳떳함이 없어서 안택(安宅)이 오래 비었고, 영대가 오래 묻히어져서 영대로 되지 못하였고(139쪽)

상황이 악화되자 천군은 궁궐과 나라를 버릴 생각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관찰한다. 하지만 가시덩굴이 심지(心地)에서 나고, 이끼와 풀이 단전(丹田)을 거칠게 파묻어서 어느 한 곳도 수레를 멈출 만한 데가 없었다. 결국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천군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한다. 주인공의 간언에 따라 도읍지를 옮길 생각을 접은 그는 다시 자신의 공간에 들어앉아 문턱의 밖은 지수에게 맡기고, 자신은 문턱의 안을 제어하기 위해 심기일전한다. 모든 상황이 수습되면서 천군은 다시 영대 위에 팔짱을 단정히 끼고 고요하고 묵묵히 앉아 높이 군림하게 되었고, 백체가 순종하여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없어졌다고 한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자 ‘화순(和順)이 쌓여 몸에는 넓고 윤택한 기쁨이 있고 영화(榮華)가 외면에 드러나서 등에는 의로움이 넘치고 덕에 배부르고 의의 옷을 입을 듯’한 신체 변화가 동반된다. 이렇게 마음의 위기와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은, 그 위기 상황이 내인이나 외인이냐에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리」와 「여행에서의 귀환」이라는 두 가지 경험적 은유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로서 <천군실록>의 의미

<천군실록>은 분명 심성소설의 오랜 전통 속에서 창작된 작품이긴 하나,



‘마음 나라’가 아니라 ‘몸 나라’, ‘마음 소설’이 아니라 ‘몸 소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간의 물질적 몸을 그 인물·공간·플롯 구성의 토대로 삼고 있다. 또한 천군의 활동을 그린 이 서사에는 마음(心)의 두 가지 차원, 즉 혈액을 온몸에 보내고 기의 흐름을 관장하는 물질적 기관으로서의 마음과 인지적 현상으로서의 마음이라는 두 차원에 걸친 지식들이 풍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천군실록>은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라고 일컬을 만하다.

실제로 <천군실록>은 도교 의학서인 『황제내경』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거나 그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sup>34)</sup> 마음의 수양 방법을 서사화한 허구의 문학 작품이 실제 몸을 다루는 의서(醫書)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신체화하여 이해하게 되면 수양론과 의학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의보감』도 병을 다른 어떤 것의 공격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조화가 깨진 현상으로 본다. 건강하다는 것은 병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몸-마음을 유지하여 병과 함께 내 몸을 주재(主宰)하는 것이다.<sup>35)</sup>

<천군실록>에서 마음의 내부 위협과 외부 위협을 전쟁과 여행이라는 두 가지 다른 경험적 은유로 표현한 것처럼, 『황제내경』에서도 질병을 내인과 외인으로 구별해 말단적 자극이나 지나친 애착 등으로 발생한 감정을 질병의 내인으로 보고, 외부의 물리적 자극으로 몸 바깥에서 들어와 몸 안의 조화를 깨뜨리는 기운을 사기(邪氣)라고 특칭하여 질병의 외인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 의서들이 외인의 질병관을 서술할 때 병법(兵法)의 개념을 빌려와 우리의 몸을 질병을 방어하는 진지처럼 다루기도 한 것은 <천군실록>에서 마음의 수양법을 설명하는 방식과도 일치한다.<sup>36)</sup> 이처럼 <천

34) 김수영(2019), 앞의 글, 227쪽.

35) 김지중(2019), 앞의 글, 131쪽.

36) 정우진(2021), 앞의 책, 184쪽.

군실록>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인간의 마음·몸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37)</sup>

그런데 모든 심성소설들은 동아시아적 관점의 심(心)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는 꼭 <천군실록>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아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천군실록>이 인간의 신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작중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초창기 심성소설인 김우옹(1530~1603)의 <천군전>에서는 외물(外物)에 감응하는 신체의 각 부분을 신하로 임명하여 그것이 구체적인 몸적 감각과 욕망과 사투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고, 담화적 차원에서도 신체 각 부분의 형상에 관한 묘사가 동반된 바도 없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몸에 관한 서술보다는 내무총재 경(敬: 공경함)이나 서무백관 의(義: 의로움), 대장군 극기(克己: 나를 이김)와 지(志: 굳센 뜻)라는 인물들로 형상화된 정신적 차원의 마음의 기능과 역할들이 철저히 전경화되어 있다.

한편 조금 더 후대의 작품인 황중윤(1577~1648)의 <천군기>에서부터는 몸을 활용한 담화 표현들이 상당 부분 활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37) 이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점은 최근 창작된 디즈니·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2015, 2024)와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느껴진다.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인간 마음의 작용을 ‘머릿속’에 위치한 ‘감정 컨트롤 본부’에 비유한다. 이 서사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각적 체험은 기쁨, 슬픔, 분노, 혐오, 소심함 등 감정의 의인화된 인물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이들이 인간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반응(뇌 속의) 기계 장치를 작동하여 신체 외부로 출력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상상은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이 ‘뇌’에 있는 것으로 보는 인식에서 구성된 것이며, 그러한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마치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이 존재하는 컴퓨터의 기계 장치처럼 상상하는 현대인들의 사유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간 마음에 생기는 위기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인물(감정)들이 충돌하여 본부를 이탈하였을 때 생기므로, 모든 감정들이 조화롭게 기능할 때 위기가 해결된다.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는 감정(情)이 아니라 도덕성(性)을 중심에 두고 마음 위기의 극복 방식을 사유하는 한국의 심성소설과는 또 다른 방식의 인간 이해를 보여준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서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알 수 있다.

<천군기>는 전대의 심성소설들에 비해 인간의 욕망과 몸의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sup>38)</sup> 이 작품에서 천군이 즉위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천군실록>에서와 같이 이목구비를 뜻하는 네 명의 장군에게 외성을 맡기는 것이다. 마음 나라를 위협하는 인물들은 욕망(慾氏), 미색(越白), 술(歡伯)인데, 이들로 인해 국정이 혼란해지자 도망친 천군이 잠민국(酣眠國)의 수향(睡鄉:잠)에 들어가 몸을 의탁하다가 수마(睡魔:졸음)와 염(魘:악몽)의 공격을 받는 장면은 물질로서의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나 욕망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천군이 이들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계기가 된 것은 유회씨(有悔氏: 뉘우침)의 충고로, 마음을 되돌아보는 뉘우침의 성찰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전대의 심성소설들도 욕망이나 감정과 같은 물질적 몸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거나, 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천군실록>에서와 같이 마음을 위협하는 도적 떼들이 여색, 소리나 옷, 보물, 술 등 구체적인 ‘외부 사물’을 탐하는 마음으로 형상화되고 있거나, 이목구비와 손발과 같은 우리 몸의 신체 기능과 감각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 <천군실록>에서는 단순히 서사의 소재적인 차원을 넘어서 담화 차원에서도 물질적 몸의 관찰을 통한 ‘묘사’나 몸적 지식에 관한 ‘나열’적 서술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천군실록>에서 몸-물질의 담화가 적극적으로 등장한 것을 두고 19세기 조선의 ‘물질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의 표출로 이해하였다. 조선 후기에 골동서화의 애호와 같은 사치 풍조가 유행하게 된 세태 변화 속에서 마음을 방심케하는 다섯 도적들을 구체적으로 등장시켜 물질 중심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마음에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외부의 대상이 더 이상 ‘음식남녀’의 범주로

38) 김수영, 『마음과 욕망』, 소명출판, 2021.

단순해질 수 없는 복잡다단해진 현실과,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작가의 태도가 천군이 성의관을 증축하고 담장을 높게 쌓아올린 후 자물쇠로 성문을 단단히 걸어잠그는 결말처럼 물질과 마음을 완고히 분리시키는 수양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천군실록>은 <천군기>와 같은 전대의 심성소설이 보여준 정이나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아예 차단하며, 작가의 보수적인 주리적 심성론을 반영했다고 이해되기도 했다.<sup>39)</sup>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2장에서 살폈듯, <천군실록>은 그 내용이 보여주는 보수성과는 달리 막상 담화적 차원에서는 ‘몸-물질’에 관한 정밀한 묘사와 관찰적 표현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사실은 작가 역시 스스로 그토록 엄격하게 거리를 두려 했던 당대 물질문화의 영향으로부터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사회가 보여주는 물질 중심의 분위기는 단순하게 물질에 관한 애호라는 현상적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없다. 물질 중심의 실물경제의 변화와 함께 민간의 자본력이 형성되고,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소비가 촉진되면서 물질이 인간의 삶에서 한층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유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장의 인용문들 중 ㉠~㉢로 표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특히 <천군실록>에서는 인간의 물질적 몸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 하나 나열하거나 같은 층위의 경험적 현상을 조목조목 늘어놓는 식의 담화적 구성방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적 구성은 조선 후기 물질 중심의 사회를 살면서 사물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그에 대한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이다.<sup>40)</sup> 박지원, 이덕무, 이옥의 글에서도 일상 속 사물을 목격하여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묘사하는 양상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사물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부분을 하나하나

39) 김수영(2019), 앞의 논문, 238쪽.

40) 김현주, 「현실적 물질주의」, 『관소리문화사』, 2022, 205~206쪽.

뜯어보고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서사의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실물적 사고는 인간의 감각체계 중에서 시각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통한 ‘묘사’와 사물의 ‘나열’과 같은 서사적 서술 방식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킨다. 물질 중심의 문화는 사물의 형상과 색깔, 이름과 같이 겉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형상적 사실성에 대한 관심을 추동하였는데, 이는 물론 인간의 이목구비를 통해 감각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군실록>의 담화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신체화된 표현들은 비물질적인 차원의 도덕 이성을 다루던 심성소설의 창작에도 형상을 지닌 물질과 그러한 물질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이 개입하게 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내용적, 담화적 측면에서 모두 신체화된 서사인 <천군실록>은 독자들에게 아주 높은 정도의 ‘자기지시성’과 ‘반성성’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 작품은 인간 ‘마음’의 작용과 상태 변화를 형상화한 서사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 보편의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몸’을 전경화하면서 끊임없이 손과 발, 눈과 귀, 입, 심장과 육부를 호명한다. 특정 유형의 살로 된 덩어리, 뼈와 피, 기관, 신경, 액체 등의 ‘물질’로 구성된 신체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지각하고 감각하는 보편 물질이다. 관념적인 심성 수양론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몸을 중심으로 설명될 때, 그 내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온전히 상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경(敬), 성(誠), 의(義)가 중심인물로 나올 때보다, 이목구비나 손발같이 현실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친숙한 신체를 전경화하는 경우 독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도 갖추어진 ‘물질적 몸의 현존성’을 느끼면서 서사를 읽어나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천군실록>의 서사 세계에서 천군이 ‘고금의 글을 읽으며’ 개연히 탄식하고 심사가 울울해지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장면에서 독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도 현재 진행 중인 몸적 경험으로서의 독서 행위를 메타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또 서사 세계에서 인간의 몸 부분 부분이 직접적으로 호명될 때 독자들은 현실 세계의 자기 몸의 생김

새나 외양, 기능을 계속 떠올리거나 인지하면서 서사를 읽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독서 과정에서 독자들은 서사세계 내 천군이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몰입하여 극중 사건이나 시공간적 배경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동화를 이루다가도, 문득 문득 이러한 몰입과 동화로부터 벗어나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자신의 몸과 몸적 체험 자체를 반성적으로 보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독서 중에 서사세계의 몸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세계의 몸을 지각하게 되는 자기각성의 순간은 극적 긴장의 이완을 가져온다. 독서 중 지속되는 극적 긴장감이 한순간 풀어지면 독자들은 극을 낮설게 보게 되며, 심리적인 긴장과 속박으로부터 잠깐의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의 순간, 잠시나마 독자들은 성리학적 심성론에 근거하여 구성된 서사세계의 진지함을 무너뜨리면서 현실을 지배하는 규범과 원칙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맞볼 수 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웃음은 불가피하게 저절로 일어나는 몸적 반응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이나 정신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몸 자체로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다.<sup>41)</sup> 이를 통해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로서 <천군실록>은 독자들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적 체험을 안겨주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덕무는 심성소설류 텍스트에 관해 ‘그 저술 본의와 학문적 성과는 인정되지만 유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42)</sup> <천군전>, <신명사기>와

41) 정현경, 「웃음에 관한 미학적 성찰」,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9, 47~48쪽.

42) 신상필(2010), 앞의 글, 305쪽 참고. (李德懋, ‘與超敏齋翁乞書’, 「寄莊館全集」, 19卷, 『雅字遺稿』, 11, “心學宮源流曰俞井井, 亦焉不刊之典, 而附錄 <神明告旨>, <天君傳>, <神明告記>, 等諸作, 藏可見先賢殊多無所不用其揆之。一端, 而不其近於謬極乎? 本志於必如是, 而以愚意觀之, 雖不編入, 未禍不可; 若天君·靈祐·丹田·主人氣者, 單辭而言則可也, 至於複會而爲文字, 則何異科學之文哉? 此非記編先輩, 愚見適如是也。座下所自作圍與說, 四三代論, 盡發善哉之聲, 至於手槩以置耳。”

같은 심성소설들에서 심(心)의 양태가 다양하게 의인화된 것이 부회(復會)한 문장들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이는 허구적 서사세계를 구축한 심성소설들이 유학의 정심공부의 진지한 학문적 성과라기보다는 문학적 재미와 쾌감을 주는 텍스트로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천군실록>은 심성소설의 전통을 따라 구성된 주인공 ‘천군’에 관한 허구적 이야기이지만, 사실 천군 즉 마음은 독자인 ‘나’에게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작중 세계는 허구이지만 동시에 독자인 내가 뿌리내린 실제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독서의 주체와 대상의 자리를 뒤바꾸고 경계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독자의 현존하는 신체와 서사 속 작중인물의 신체 사이를 오가는 인지 과정, 서사 세계의 언어로 재현된 신체와 그러한 언어를 감각하는 현실 세계의 신체에 대한 메타적 인지의 과정은 서사 세계에 대한 몰입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끔 만들면서 환상적 세계가 구축한 긴장과 속박을 산발적으로 허물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점에서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인 <천군실록>은 분명 유학의 경전에서 선유들이 이룩한 마음 이해의 이론적 방식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단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는 서사의 창작자와 향유자로서 유학자들 자신이 물질적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사자적 관찰과 경험의 내용이 함께 반영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19세기의 사회 환경 속에서 ‘이성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다. 더욱이 그것이 서사적으로 수용될 때, 성리학적 심성론에 관한 지식이나 교훈뿐만 아니라 독서의 재미와 웃음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가 가진 다채로운 의미망을 찾을 수 있다.

#### 4. 결론

이상으로 이 논문에서는 심성소설의 서사적 의미작용 양상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그간 심성소설 연구에서 주목받았던 ‘마음(心, mind)’의 개념이 아닌 ‘몸(形/體, body)’의 개념에 주목하여 <천군실록>을 독해해 보았다. <천군실록>은 심성소설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몸 소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간의 물질적 몸을 그 인물, 공간, 플롯 구성의 토대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서사적 구성은 마음(心)의 두 가지 차원, 즉 혈액을 온몸에 보내고 기의 흐름을 관장하는 물질적 기관으로서의 마음과 인지적 현상으로서의 마음이라는 두 차원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게 결합된 가운데 가능했던 것이며, 그것을 19세기 물질 중심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물질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에 기반한 관찰적 담화로서 표현했음을 밝혔다.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로서 <천군실록>은 강한 자기지시성과 반성성을 이끌어내는 수용적 효과가 있다. 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심성 수양론에 관한 현실적 이해를 돕는 효과뿐만 아니라 유희적 효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신체화된 서사’인 심성소설인 <천군실록>은 분명 유학의 경전에서 선유들이 이룩한 마음 이해의 이론적 방식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단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는 서사의 창작자와 향유자로서 유학자들 자신이 물질적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사자적 관찰과 경험의 내용이 함께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성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다. 더욱이 그것이 서사적으로 수용되는 측면에서, 교훈뿐만 아니라 웃음과 재미를 전달하는 복합적인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우용, <천군전>, 임제, <수성지>, 유치구, <천군실록>; 김광순 역주, 『한국 고전문학전집 2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462쪽.
- 강혜진, 「콘텐츠 기반 고소설 연구 시론-천군소설과 웹툰 <가담항설>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5, 우리어문학회, 2013, 245~293쪽.
- 김광순, 『천군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6, 1~360쪽.
- 김수영, 「<천군실록(天君實錄)>의 서사 특성과 사상적 지향」,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203~247쪽.
- 김수영, 『마음과 욕망』, 소명출판, 2021, 1~313쪽.
- 김인경, 「16~17세기 心性敍事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166쪽.
- 김지중, 「동의보감의 양생으로 본 몸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예술치료연구』 11호,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2019, 129~189쪽.
- 김현주, 『판소리문화사』, 민속원, 2022, 1~384쪽.
- 신상필, 「천군류 출현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문학적 지위」,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285~311쪽.
- 엄기영, 「<천군전>, 남명학파의 정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39, 고소설학회, 2015, 43~72쪽.
-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3, 한국한문학연구회, 1990, 45~35쪽.
- 이채은, 「판소리 연행의 신체화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207쪽.
- 정우진, 『몸의 연대기: 동아시아 몸의 역사와 철학』, 소나무, 2021, 1~342쪽.
- 정현경, 「웃음에 관한 미학적 성찰」,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9, 1~207쪽.
- 체화인지연구단, 『마음이란 무엇인가: 뇌중심주의를 넘어 체화인지적으로 접근하기』, 박이정, 2024, 1~203쪽.
- 마크 존슨, 노양진 옮김, 『마음속의 몸-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 철학과현실사, 2000, 1~394쪽.
- 테리 이글턴, 전대호 옮김, 『유물론: 니체,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의 신체적 유물론』, 갈마바람, 2018, 1~223쪽.

## ABSTRACT

The Meaning of *Cheongun-silok*(天君實錄: the Annals of the Cheongun) as a Narrative of 'Embodied Mind'

Lee, Chae-eun

As a way to understand the narrative meaning of psychological novels and their effects in detail, this paper tried to read "Cheongun-silok"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of "body," not the concept of "mind," which had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psychological novels. "Cheongun-silok" carries on the tradition of psychological novels, but it is safe to call them "body novels" and used the human material body as the basis for the composition of the person, space, and plot. This narrative composition was possible amid a rich combination of knowledge about the two dimensions of the mind: the mind as a material organ that sends blood throughout the body and controls the flow of energy, and it was revealed that it was expressed as an observational discourse based on interest in the body as a material in the transition to a material-centered society in the 19th century.

As a physicalized narrative of the mind, "Cheongun-silok" has a receptive effect that leads to strong self-directivity and reflection. This is the cause of deriving a playful effect as well as an effect that helps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abstract and ideological mind cultivation theory. In this respect, "Cheongun-silok", a psychological novel that is a 'physicalized narrative', is clearly created by accepting the theoretical method of understanding the mind achieved by the ancestors in the scriptures of Confucianism, but that is not all. Here, as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narrative, the contents of the party's observation and experience of Confucian scholars themselves living with a material body are reflected together, and concerns about the way they live as 'rational animals' in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re included. Moreover, in terms of its narrative acceptance, it is meaningful as a complex text that

conveys not only lessons but also laughter and fun.

**Key Words** Embodiment, Embodied theory, Psychological novel, the Theory of the mind of neo-confucianism, the Materiality of the body

논문투고일: 2024.10.15.

심사완료일: 2024.11.06.

게재확정일: 2024.11.17.